

전주 초가을밤, 조선팝 흥에 취하다

30일~9월 29일 야외공연 형태 '전주조선팝 상설공연' 진행

소리의 고장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에서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초가을밤의 조선팝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예코시티 세병호공원과 혁신도시 연순공원, 서부신시가지 용호근린공원에서 야외공연 형태의 '2024 전주조선팝 상설공연'을 진행한다.

전주조선팝 상설공연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팝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지역 조선팝 예술가들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전주조선팝 상설공연은 △세병호공원(8월 30일~31일) △연순공원(9월 6일~8일) △용호근린공원(9월 20일~22일) △세병호공원(9월 27일, 29일) 등 총 10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 7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2팀을 포함한 전주조선팝 뮤지션 총 18팀이 참여해 각각의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게 된다.

먼저 첫 번째 공연 장소인 세병호공원에서는 △온도 △땅콩공 △노다밴드 △살롱드국악선 울모리 △이희정밴드 △JPG가 이틀간 무대에 올라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어 △라플라예술연구소 △하양 △이상밴드 △시나위현대국악 △구각노리 △해화 △국은 예트 △거꾸로프로젝트 △한다두 △이로 △나릿 △운대만X음유시인 등이 참여하는 색다른 조선팝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번 전주조선팝 상설공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시는 공연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조선팝TV'를 통해 공연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전통적인 음악과 현대적인 음악의 결합을 통해 남녀노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조선팝 공연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밤 풍류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 전주조선팝 상설공연 포스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하얀 태양과 푸른 그림자' 기획전시

익산예술의전당, 지역 청년 작가 초대전 9월 26일까지 개최

익산예술의전당이 기획전시로 지역 청년 작가 초대전 '하얀 태양과 푸른 그림자'를 오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송하영, 정성진, 권아리, 이을, 김연경, 백열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회화와 설치, 영상 등 개인의 경험과 느낌을 독창적 예술형식으로 표현한 3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송하영 작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비가시적 느낌을 기하학적 선과 면을 통해 시각적 형상으로 재현한다. 정성진 작가는 디지털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식과 결과물을 표현한다.

권아리 작가는 생경한 풍경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이을 작가는 사회 시스템의 질서와 무질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사머니즘적 요소를 통해 그려낸다.

김연경 작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진 영상과 그림을 선보인다. 작가 백열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를 플라스틱 의자를 통해 설치작업으로 표현한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과 추석 연휴는 휴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arts.iksan.go.kr) 또는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원 예술의전당 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청년 작가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작가들을 알리고 지역 예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부안예술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술극장 공연

부안군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술극장 공연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안군, 우석학원이 주최하며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즐기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연출 방법으로 클래식 공연을 준비했다.

공연은 '센세이션브라스' 팀이 금관앙상블과 성악의 협업 그리고 영상과 함께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통해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으로 진행된다. 또 악기 체험 시간을 통해 연주자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어가 즐거운 공연을 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공모

전북대, 31일까지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오는 31일까지 제24회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다. 시는 시조 포함 세 편 이

상, 소설은 한 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상금 규모를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신문방송사 홈페이지(www.jbpresscenter.com)나 전화(063-270-3536, 353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관광협의회, 미디어아트 크리에이터 자격증 취득과정 개강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지난 19일 미디어아트 크리에이터(프로젝션 맵핑)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 관광 크리에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으로 8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오후 3시~5시) 진안군민자치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총 10회차로 구성된 이번 과정에서는 △미디어아트 개념 및 이론 △레이어 활용 △인터랙티브아트 △시각화 콘텐츠 △비주얼 콘텐츠 제작 △프로젝션 맵핑 실습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모바일 기반 빅 프로젝트 등 매체를 활용해 투사된 영상을 기반으로 공간 디자인, 공연, 광고, 전시 등 더욱 쉽고 활용성이 높은 방식의 미디어아트를 배



울 수 있게 된다. 수강생들은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 및 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최종 실습 과정으로 직접 제작한 미디어아트 작품은 진안홍삼축제 기간인 10월 4일부터 5일, 마이산북부에 위치한 소원공작소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수강생들이 배운 바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문화공간이름, 11월까지 총 7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공간이름(대표 이운정)이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 시리즈는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미술 전문가 최지영 해설가의 참여로 깊이 있는 몰입감을 선사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공연은 22일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설치 미술가 '고보연'의 작품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이뤄진다.

고보연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설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이올린 연주자 임영주, 첼로 연주자 박재은, 피아노 연주자 이영신의 연주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어 28일 공연에서는 청소년을 주제로 한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트레 마그리트'의 작품과 그에 작품에 영감을 받은 영화 OST가 중심이다.

특히 영화 '아버지', '천공의 성 라퓨타', '하

울의 움직이는 성' 등의 OST가 기타 연주자 이상욱, 바이올린 연주자 신이나와 송동준, 첼로 연주자 김주빈, 피아노 연주자 송한경, 그리고 소리꾼 이도경의 협연으로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운정 대표는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은 지난해 재단의 지원으로 처음 선보인 후 올해 그 형식을 더욱 보완해 시즌2로 자신 있게 선보이는 문화공간이름만의 브랜드 공연"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 시리즈는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가격은 전석 2만2,000원으로 네이버에서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을 검색해 예매할 수 있다.

특히 문화공간이름이 시행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해 방문한 관람객은 인증을 통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로는 문화공간이름(063-223-5323)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